

# ‘반려동물 천만 시대’ 수의학과 인기 상승

###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원자 몰려 경쟁률 ‘역주행’ 팻산업 양적 성장 따른 수험생들의 기대치 반영

‘애는 안 키워도 개는 기른다’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대학 입시에서 수의학과가 매년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다.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어 취업전망이 밝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들에게 수의사가 선포하는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올해 역시 관련 학과의 경쟁률은 쉼 없이 높아져 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2020년 수의대학 입시 결과를 분석해 봤다.

◇전체 경쟁률 Top ‘건국대 수의예과’  
지난해 전국 수의대 중 최고의 경쟁률은 건국대 수의예과 KU는술수사자전형으로 나타났다. 10명 모집에 무려 2353명이 지원했다. 건국대 전체 수시 모집 인원(2136명) 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경쟁률은 무려 235.3대 1이다. 이는 50년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건국대 수의과대학의 명성과 눈물겨운 특유의 경쟁률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건국대의 눈물겨운 경쟁률이 64.6대 1인 것을 감안해도 3.5배나 높다는 점은 최근 수의대의 인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시 경쟁률 Top ‘제주대 수의예과’  
올해 정시에서 최고 경쟁률은 제주대 수의예과다. 22명 모집에 614명이 지원했다. 27.91대 1의 경쟁률이다. 이는 전국 10개 대학의 수의예과 정시 평균 경쟁률(10.27대 1)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대 수의예과는 나머지 9개 대학들이 정시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한데 반해 홀로 다군에서 모집했다. 자연스럽게 가/나군의 수의예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다군

으로 몰려드는 분석이다.

다만, 가군 수의대 지원자 846명 중 일부는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 탓에 다군 제주대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으로 끝까지 고민하다가 다군 제주대의 높은 경쟁률 피하기 위해 타 대학의 의치·한의학계열 학과로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수의대 경쟁률은 ‘역주행’  
올해 전국 수의대 10개 대학의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10.27대 1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입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지만 수의대만 예외라는 의미다.

같은 기간 대학 정시 경쟁률은 11.49대 1에서 11.61대 1, 9.05대 1로 해마다 떨어졌다.

특히 이번에는 고3 학생이 5만명 이상 줄고, 전년에 비해 정시 수의대 전체 모집 인원은 67명이나 줄었는데도 지원자는 오히려 69명이 늘었다. 학생들의 수의대에

대한 인기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대학별로는 제주대와 더불어 경상대(15.13대 1), 전북대(12.45대 1), 충북대(11.6대 1) 등이 두 자리 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 나군으로 뽑는 전남대의 경우 2017년 12.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다가 2018년 8.89대로 낮아졌다. 2019년에는 17명 모집에 168명이 몰려 9.88대 1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6명 모집에 159명이 지원 9.94대 1로 상승해 올해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울대는 작년에 비해 정원이 배로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전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와 팻산업의 양적 성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수의학과가 의치·한의학 계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위상이 격상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호남대·광주여대·광주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탄력 호남대학교와 광주여대, 광주대학교 등 광주지역 3대 대학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뽑혔다.

이중 호남대는 4년 연속, 광주여대는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광주대는 올해 처음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대열에 가세했다.

이들 3개 대학은 교육부 주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에서 각종 기준을 통과해 인증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해외 선진대학 교육 참여 및 자매결연 확대, 국제 교류 활동,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는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언어능력,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 기숙사 제공률 등 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인증대학은 정부초청 장학생(GKS)과 같은 국제화 관련 대학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대학특성화사업 등 교육부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다.

김혜정 광주여대 국제교육원장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교육의 질을 높여 유학생들과 한국인 재학생들이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상담교사 9명 합격

상담심리학과로서는 지역 최초인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상담교사 양성 전문학과로서 명성을 굳혔다.

광주·전남 최초 상담심리학과인 동신대 상담심리학과는 올해 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에서 학과 설립 후 최다인 9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대학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신대는 올해 2월 졸업 예정인 김의정(23)씨를 비롯해 졸업생 김현희·홍지경·김서현·허정환·김세아·김유람·이인화·최보영씨 등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9명이 2020년 전문상담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에 6명이 합격했으며 서울·광주·충남 각 1명이다.

동신대 상담심리학과는 지난 2005년 학과 설립 후 2006년부터 교직 과정을 개설, 최근 3년간 무려 17명의 상담교사를

배출했다. 2018년 3명의 합격자를 시작으로 2019년 5명, 2020년 9명으로 매해 합격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동신대가 2013년부터 상담심리학과를 교내 특성화학과로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2016년부터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예방상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것이 빛을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희현 동신대 상담심리학과장은 “우리 학과가 전국 최고의 상담심리학과가 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양성과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자격증 특강 등 양질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국가인증마크 제품만 사용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등 스포츠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만 사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성인용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성인용 제품이어도 어린이제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 제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서 쓰는 스포츠용품에서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3월부터 협의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낫스,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가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205개 공구 제품에 대해 1월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동강대 학과 자체 졸업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제43회 학사학위수여식’을 취소하는 대신 학과 자체 행사로 열어 새 출발을 축하했다. 보육복지과는 인문사회관 4층 강의실에서 학과 자체적으로 졸업식을 가졌다.

## ‘온라인 공유설비예약시스템’ 새학기 전면 개통

### 전남교육청

전남 지역 통학차량 배차와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인 Wee센터 상담 예약 등을 통합한 ‘온라인 공유설비예약시스템’이 새학기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일선 학교와 기관

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통학차량 배차 신청과 Wee센터 상담, 교육지원청 회의실 예약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이나 공연 관람, 각종 대회 참석 등을 앞두고

통학차량 배차 신청을 할 때면 매년 공문을 작성해야 하고, 차량 배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신청 절차와 배차 과정이 간편해지게 됐고, 차량 배차나 회의실·Wee센터 상담 예약 과정에서 행사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없이 선착순 배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학 입학처장협의회, 대학입시 정시 확대 공식 반대 의견

대학 입학처장들이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입학처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가 교육과 입시정책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정책은 2023년까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 16개교가 정시모집 선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을 축소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입학처장협의회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입제도 개편 발표로 인해 수험생·학부모·교과·대학이 모두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정 중심, 학생참여 수업이 위축되고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돌아가 공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가 퇴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지 말고, 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